



뉴발란스가 후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5km 달리기' 대회인 '뉴발란스 컬러런'이 7월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 뉴발란스

뉴발란스 컬러런 色다른 질주를 만끽하라

7월18일 잠실종합운동장서 개최
8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참가 접수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가 후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5km 달리기' 대회인 '뉴발란스 컬러런'이 7월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8일부터 온라인 참가접수가 시작된다.

레이스 도중 컬러 파우더를 뿌리는 등 독특한 형식의 뉴발란스 컬러런은 2012년 1월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론칭 1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 순위를 가리기 보다는 5km를 함께 즐기는 편(FUN) 대회다. 뉴발란스 코리아가 2013년부터 공식 타이틀스폰서로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뉴발란스 컬러런은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만6000명에 한해 '우선'에서 접수한다. 참가비는 4만5000원.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 기념 티셔츠와 선글라스, 니삭스, 헤어밴드, 일회용 타투 등 푸짐한 참가자 패키지를 증정한다. 뉴발란스 매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일부 신발과 퍼포먼스 의류 및 용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하는 250명에게 선착순으로 참가권이 무료 증정된다. 6월26일(금)~6월28일(일) 3일간 뉴발란스 홍대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압구정점 및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www.nbkorea.com)에서 접수할 수 있다.

뉴발란스 컬러런 현장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스페셜 부스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컬러런의 상징인 컬러 파우더가 뿌려지고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발란스 퍼포먼스 페이스북(www.facebook.com/NewBalanceperformanceKR), 뉴발란스 퍼포먼스 블로그(nbsports.tistory.com), 더 컬러런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thecolorrun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리복 'Z펌프 퓨전 썸머 패키지' 출시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밝고 시원한 컬러를 강조한 러닝화 'Z펌프 퓨전 썸머 패키지'(사진)를 출시했다. 'Z펌프 퓨전 썸머 패키지'는 리복의 혁신적인 펌프 테크놀로지를 유지하면서 올 하반기 트렌드 컬러를 반영해 화사하고 새로운 썸머 컬렉션으로 거듭났다. 새로 출시되는 썸머 패키지는 밝은 톤의 색상을 바탕으로 한층 가벼운 느낌과 함께 청량감을 주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 남성용 3가지, 여성용 2가지 등 총 5가지 색상이 출시됐다. Z펌프 퓨전 썸머 패키지에는 리복의 대표적 기술인 펌프 테크놀로지가 신발 바깥쪽 측면에 적용됐다. 펌프 버튼을 누르면 신발 갑피 내부 공기방에 공기가 주입되어 착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현길 기자

로또 당첨금 19억원 주인 찾습니다

지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로또 당첨금 약 19억원이 1년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해 6월7일 제601회부터 제604회까지 수령하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602회 차 1등 미수령 금액은 약 16억 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4, 22, 27, 30, 38'이다.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은 6월15일까지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광주 서구 복권 판매점으로 전해졌다. 또 총 3건의 2등 미수령 당첨자들이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경북 고령군 고령읍(제 601회, 약8100만 원)과 서울 강북구 수유3동(제603회, 약7600만 원), 전남 여수시 소라면(제604회, 약6200만 원)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해당 미수령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은 각각 이달 8일, 22일, 29일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금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과 각 지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 서만 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잡아라...이통사들 뭉쳤다

이통3사 통합 앱 마켓 '원스토어' 운영

론칭 기념 캐시백 할인 등 공동프로모션
국내 앱 시장 구글 52%·애플 31% 양분
'원스토어'가 점유율 변화 가져올지 촉각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애플리케이션(이앱)마켓을 통합·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앱 유통시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SK플래닛과 KT, LG유플러스는 4월 통합 개발자센터 오픈에 이어 "T스토어"와 "올레마켓", "U+스토어"에 대한 개발을 마무리하고, 3일 '원스토어'를 정식 오픈했다.

●통신3사 공동프로모션 체계 구축

월 1700만명이 이용하는 통신3사의 앱장터를 통합한 원스토어는 통신사별로 스토어에 접속해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통신3사가 유통하는 단말 대부분이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스토어 어디에서나 동일한 앱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3사 스토어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된 만큼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경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신사 스토어마다 따로 관리하던 평점과 리뷰, 랭킹, 사용후기, 추천 콘텐츠



SK플래닛과 KT, LG유플러스는 3일 T스토어와 올레마켓, U+스토어를 통합한 원스토어를 정식 오픈하고 론칭을 기념해 마켓 내 모든 게임을 결제한 고객에게 30% 할인 특별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들이 통합 제공돼 편리하다. 통신3사는 공동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캐시백 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예정이다. 현재 원스토어에는 '뮤오리진'과 '모두의마블 for Kakao', '영웅 for Kakao' 등 인기 게임들이 입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3사가 보유한 고객 관리,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콘텐츠 유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3사는 원스토어 론칭을 기념해 3일부터 사흘간 3개 마켓 내 모든 게임을 결제한 고객에게 30% 할인 특별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애플·구글 양강 구도 쟁가

통신3사가 통합 앱마켓을 운영하면서 국내 앱 유통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 심장은 ‘야크온’과 함께 뒹다”

블랙야크-LG, 스마트워치 앱 공동 개발
은사 섬유 소재 활용 정확한 심박수 측정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웨어 '야크온P'와 연동되는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 '야크온'을 LG전자와 공동 개발해 선보인다.

야크온은 국내 최초로 LG전자의 스마트워치 'LG워치 에버인 LTE'에 탑재되어 출시된다. 스마트웨어 '야크온P'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심박수를 손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야크가 자체 개발한 은사 섬유 소재를 활용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전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웨어를 기기보다 한층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다.

야크온에는 심박수 측정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운동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다. 걷기와 달리기, 등산, 자전거, 실내운동 등 다양한 운동방법을 설정할



LG워치 에버인 LTE 스마트워치의 블랙야크 '야크온' 실행화면. 스마트웨어 '야크온P'와 연동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진제공 | 블랙야크

수 있다. 사용자는 각 운동방법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슴에 부착된 야크온 펄스(전용 블루투스 심박 측정 송수신기)와 티셔츠로 구성되어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SKT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100만 돌파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경쟁사 추월
유무선 음성통화 무제한 파격 조건 한몫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 구간 유무선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파격 요금제로 가장 늦게 합류한 SK텔레콤의 상승세가 무섭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2주 만에 가입 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준으로 106만명이 가입했다. 지난달 8일 가장 먼저 관련 요금제를 내놓은 KT는 60만명, LG유플러스는 35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요금제 흥행은 유무선 무제한 음성통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회사가 요금제를 변경한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무선 무제한 통화(51%)를 요금제 변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리필하기·선불하기 등 데이터 '자유자재' 서비스가 3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최근 전 요금 구간에서 유무선 음성통화 무제한을 선언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한 특정시간에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KT·마이타임 플랜)와 비디오 혜택을 늘린 새 요금제(LG유플러스)를 내놓으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한국 ICT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미미”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내 정보통신 기술(ICT)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3일 서울 서교동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와 KT, LG유플러스, SK&C, 삼성SDS 등 국내 IT기업 7곳의 환경 성취표를 담은 보고서 '당신의 인터넷은 깨끗한가요'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현황을 공개한 기업 중에는 SK&C가 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어 KT는 0.44%, 네이버는 0.006%를 나타냈다. 그중 지난 달 '데이터센터 각'의 100% 재생에너지

지 사용목표를 공식화한다는 의견을 그린피스 쪽에 전달한 네이버는 투명성과 재생에너지 정책면에서 모두 A를 얻었다. SK&C와 KT는 투명성에선 B를, 재생에너지 정책에선 D를 받았다. LG CNS의 경우 투명성은 C, 재생에너지 정책은 D였다. 응답을 거부한 삼성SDS, LG유플러스 등은 두 부문 모두 F를 받았다. 한편 그린피스는 새 기후에너지 캠페인 '탄거하자'를 진행한다. IT업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나 위험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김명근 기자

쿠팡, 소프트뱅크서 1조1000억원 투자 유치

R&D센터 강화·배송 인프라 구축 박차

쿠팡이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약1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5월 미국 세쿼이아캐피탈에서 1억 달러, 11월 미국 블랙록으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받은 총 투자금은 14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해 글로벌 벤처 단일 투자유치금액 중 우버와 샤오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이번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자체배송 시스템 완성'과 '모바일 커머스 리더십', '글로벌 수준의 IT기술력 보유' 등을 꼽았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고,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적인 사업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성장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쿠팡이 e커머스를 더욱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IT투자자인 만큼, 쿠팡의 재무적인 경쟁력뿐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해외 R&D센터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개발 인력도 채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전국단위 당일 직접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